

“미세먼지 대책, 신재생에너지로 대체가 답”

광주과학기술진흥원 과학포럼 신재생에너지 시장 현황과 전망 'SWEET 2019' 전 내일까지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다룬 과학기술포럼이 13일 광주에서 열렸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수요와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안기석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은 "한국 전력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에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이전되면서 지역 신재생에너지와 전략적으로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광주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는 이날 오후 3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차 과학기술진흥 포럼 '2019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오는 15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에너지 전문 전시회 'SWEET 2019'와 연계해 개최됐다. 에너지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국내·외 관련분야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공유했다.

먼저 양승학 호남대학교 산학협력선도



양승학 호남대 교수가 13일 오후 열린 포럼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제공>

육성사업단 교수가 '광주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략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왕이수 중국 상하이과학기술교류센터 부국장의 '중국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전망' 발표가 진행됐다. 왕이수 국장은 상하이기술연구

소 수석 엔지니어 등을 지내고 상하이과학기술진보상, 상하이과학기술성과혁신상 등을 수상했다. 포럼에서 그는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대책 등을 소개했다. 또 국내외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녹색기술벤처분야 정책 등에 대한 연

구 성과 등을 발표했다.

한편 올해 14회를 맞는 'SWEET 2019'에는 에너지 관련 기업·기관 30개국 220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포럼과 같은 장소에서 오는 15일까지 열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간, 연내 달에 복귀한다

NASA, 민간우주선 활용 예산 4096억 편성 로봇과 함께 달 전체 누비며 과학 임무 수행

트럼프 행정부가 공언해온 달 복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중에는 시작될 전망이다.

집 브라이든스틴 미국항공우주국(NASA) 국장은 지난 11일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에서 가진 '2020회계연도' NASA 예산안 연설에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간을 달에 복귀시키는 예산을 갖게 됐다"면서 달 복귀 계획을 구체화했다.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대통령은 우주정책 명령 1호로 달에 복귀할 것을 지시했으며 우리는 이를 즉각 이행할 계획"이라면서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까지는 민간 우주선이 달로 과학장비를 실어나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민간 우주선 활동을 시작으로 오는 2028년 이전에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착륙선과 로봇, 인간이 달 전체를 누비며 과학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SA는 민간우주선 활용 예산으로 약



오는 2020년 발사돼 화성을 탐사할 '마즈 2020'.

3억6300만달러(4096억원)를 편성했다.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2020회계연도 NASA 예산이 총 210억 달러(23조7342억원)로 2019회계연도 대비 6% 가까이

증액 편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 요구 예산(199억 달러)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의회에서 증액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실제 예산

(215억 달러)과 비교할 때는 2.3% 줄어든 것이다.

NASA 예산은 올해도 행정부에서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되살리는 과정에서 증액될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이든스틴 국장은 특히 세부 예산안 중 달 궤도에 짓게 될 우주정거장 '게이트웨이' 예산이 전액 편성됐다고 밝혔다.

달 탐사는 물론 화성 탐사의 전진 기지로 활용될 게이트웨이는 2022년에 동력 추진체를 결합하며 본격적으로 건설돼 2024년부터는 우주인이 상주하게 된다.

화성 탐사까지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SLS와 장거리 유인 우주선 '오리온'은 내년 중에 첫 무인 시험비행에 나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는 또 '마즈 2020' 발사와 화성에서 채취된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계획과 관련한 예산도 전액 편성됐으면서 "달은 성능 시험장이고 화성(탐사)이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연합뉴스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자연장·수목장

방치된 묘지 70%(추정)

우리 금수강산이 묘지장산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 자연장의 장점 •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본 자연장은 아름기도회에서 운영하는 회원들을 위한 종교시설입니다.

아름수목장 자연장·수목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4 랜드피아 1011호

☎ (062) 372-7878

오늘은 '파이(π)데이'

원주율 값 3.14 기려
광주과학관, 6개 학교서 행사

3월14일은 사랑을 주고받는 '하이트 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수학계에서는 '파이(π)데이'로 불린다. 파이(π)는 3.14 원주율 값으로, '파이 데이'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선교사인 자르투가 원주율 값인 3.14를 고안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시장의융합교육원 부설 광주수학체험센터와 함께 광주지역과 나주혁신도시 6개 학교를 방문해 '파이 데이' 행사를 연다. 과학관이 찾아가는 광주지역 학교는 풍암중, 우산중, 문흥중, 장덕고, 광주대동고 등 5곳이고 나주에서는 빛가람

중을 방문한다. 과학관 측은 ▲원주율 개념이해 ▲원주율 암기왕 대회 ▲수학OX 퀴즈 ▲원주율 속 내 생일 찾기 ▲파이나눔 수학토론 등을 진행하며 원주율과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여성독립운동가 4명 모습 담은 우표 발행

우정사업본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성독립운동가 4명의 모습을 담은 기념우표 총 62만4000장을 15일 발행한다.

이번에 우표로 제작되는 여성독립운동가는 안경신(1888-알 수 없음)과 김마리아(1892-1944), 권기옥(1901-1988), 박차정(1910-1944)이다.

안경신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하고, 임신한 몸으로 평안경찰부 폭파 의거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항일운동을 펼쳤다. 김마리아는 일본 유학중 2·8독립 선언문을 숨기고 귀국해

독립운동 참여를 독려하는 등 활발한 항일투쟁을 벌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권기옥은 한국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중국군에서 10년간 복무하면서 항일 활동을 전개했다. 박차정은 1930년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 '의열단'에서 활약했으며, '조선의용대 부녀 북부단'을 조직해 후방 공작 활동을 펼쳤다.

홍만표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이번 기념우표 발행으로 조국 독립에 헌신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중소기업에 무료 정보보호 컨설팅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센터는 기업이 개발했거나 서비스 중인 홈페이지·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원격으로 점검해준다.

또 정보보호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보안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기술적 컨설팅·법률자문 등을 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실무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기술 지원도 한다.

신청은 오는 4월1일부터 연말까지 받는다. 인력·예산 문제로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중소기업이면 지원할 수 있다.

문의 062-350-112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